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행 <28>

## 대도는 바로 눈앞에 있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선가(禪家)에 있는 자는 앉아서 곧바로 보신불(報身佛)·화신불(化身佛)의 머리를 잘라내어야 비로소 얻는다.”  
학승이 물었다.  
“보신불·화신불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의 경계는 아니야.”

師示衆云 衲僧家 直須坐斷報化佛頭始得  
問坐斷報化佛頭是什麼人  
師云 非塵境界

선가는 고가와 다르게 굳건한 믿음과 진심직설(真心直說)로 곧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믿음은 ‘부처님의 교설과 역대 선지식’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역만겁 동안 변하지 않는 부처이다’라는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 진심직설로 곧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은 선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즉석에서 ‘자신이 정말로 부처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곧 부처의 행을 행하면서 역대 선사가 그러했듯이 중생이 진심직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내려주는 것이다.

위 조주 선사의 말이 바로 진심으로 하는 직설이다. “천상 천하에 가장 위대한 부처는 바로 그대이다. 그대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잠들어 있다. 잠에서 깨어나려면 일체에 유혹되지 마라. 삼신불이라는 명칭도 버려라. 오직, 그대 자신이 가장 위대한 자이니 지금 여기서 즉시 모든 생각을 잘라내 버려라.” 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름길을 가르쳐 주면 즉시 깨어나서 중생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설법을 듣고 “보신불·화신불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하고 묻는 것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잠꼬대를 하는 것이나 다를까. 부처를 회복했다면 어찌 또 궁금함이 있으랴!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난 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조주 선사를 흠족시킬 수 있을까? 본 남자라면, “이 노인네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시득(始得) 운운하는 거야!”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내지르겠다. 그대 남자들은 어떠한가?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대도는 바로 눈앞에 있다. 요컨대 그것을 보기 어려울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눈앞에 어떤 것이 있기에 학인에게 보라고 하

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강남이건 강북이건 자네에게 맡기노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어찌 사람을 위해 방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까 무엇을 묻은 것인가?”

師示衆云 大道只在目前 要且難睹  
僧乃問 目前有何形段令學人睹  
師云 任麼江南江北  
學云 和尚豈無方便爲人  
師云 適來問什麼

눈은 창문이고 방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다. 방안에 있는 사람을 보려면 방안의 사람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래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안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강남을 보건 강북을 보건 그것은 방안의 사람이 마음대로 보는 것이다.

밖을 내다보고 보이는 대로 선(禪)을 말하고 유일신(唯一神)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 되었건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지는 않아. 백가지 현란한 꽃을 나타내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법계에 들어가면 용(用) 아님이 없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런 것과 상관없어.”

問入法界來還知有也無  
師云 誰入法界  
學云 與麼卽立法界不知去也  
師云 不示寒灰死木 花錦成現百種有  
學云 莫是入法界處用也無  
師云 有什麼交涉

여기서 법계는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 법계에 들어간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성현(聖賢)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며 처세가 다르다. 마음 깊은 곳에 번뇌가 없고 양변에 집착이 없으며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마음이 언제나 청정(淸淨)하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알아도 아는 것이 없다한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도 들어간 지도 모른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하다. 남에게 아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기의 일에 충실할 뿐, 시골의 밭가는 농부처럼 욕심도 없고 무엇을 강제로 이루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웃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활동을 하지만 구하였어도 누구를 구하였다는 말이나 생각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세계에 이른 사람이 마치 다 식어빠진 재(灰)더미 같거나 죽은 고목과 같은 삶을 사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삶을 누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 갈수도 있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성 있는 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혹은 석가모니처럼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화려한 스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렵고 글이 어렵고 말천이 없다면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아주 평범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 갈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주인공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법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정해진 것은 없다. 만물이 제각각의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듯이 성현(聖賢)도 제각각의 빛을 내기 때문에 법계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용(用)이라고 단정하지도 마라. 그러면 도(道)는 즉시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9 증도가(證道歌)

## 도의 깨침을 노래하다

영가현각(永嘉玄覺: 675~713)의 휘는 현각(玄覺)이고, 자는 도명(道明)이며, 성은 대(戴) 씨로서 절강성 운주부 영가현 출신이다. 어릴 때 출가해 삼장(三藏)을 섭렵하고 널리 외전에도 통달했다. 본래 천대의 교화에 밝았던 천태종 인물로서 천궁혜위(天宮慧威)로부터 천태학을 배우고, 동문이었던 천태종 제8조 좌계현랑(左溪玄朗)과 더불어 항상 좌선을 수행했으나 특별히 스승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법혜흥의 <임간록>에 의하면 영가는 <유마경>을 통해 불심의 종지를 깨쳤다고 한다. 이후 개원사의 현책(玄策)이라는 선사를 만나 탐마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현책과 함께 31세 때 해능을 찾아갔다. 조계산의 육조대사는 상당법문을 하고 있었다. 영가는 예배도 하지 않고 선상을 세 번 들고 나서 육환장(六環杖)을 짊고 앞에 우뚝 서 있자니 육조대사께서 물었다. “대저 사문이라면 삼천위의(三千威儀) 팔만세행(八萬細行)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그러자 영가는 생사사대(生死事大) 무상신속(無常迅速)이라 응수했다. 이에 육조가 말했다. “어찌하여 무생은 체득했으면서 신속하지 않는 도리는 요달하지 못했는가.” 영가가 말했다. “본체는 무생으로 본래 신속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 육조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인가하시니, 1000여 명의 대중이 모두 감작(感觸) 놀랐다. 그제 서야 영가는 육환장을 걸어 놓고 위의를 갖추어 육조에게 정중히 예배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하직 인사를 드리지 육조가 말했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본래 움직일조차 없는 데 어찌 빠름이 있을겠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줄을 누가 아는가.” “화상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그대가 진정 무생의 도리를 알았구나.” “무생이라면 어찌 다른 뜻이 있을겠습니까.” “다른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도 뜻은 못됩니다.” “그래, 장하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 가거라.” 그리하여 조계산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 하여 일숙각(一宿覺)이라 불리웠다. 713년 10월 17일에 입적하니 세수 39세였고, 시호는 무상대사(無相大師)고 탑호는 정광(淨光)이다.

<증도가>의 형식은 총 267구 1858자로서 무릇 7언조의 장편시에 속하는데 전형적인 당나라 시대의 고시(古詩)이다. 고시의 특성상 전체가 7자구가 아니라 51구의 6자구가 뒤섞여 있다. 이 6자구에는 바로 7자구가 3회씩 수반되어 ‘6·7·7·7’ 자구의 형태

인데 49조(組)로서 구성되어 있다. <증도가(證道歌, 佛性歌, 道性歌)>는 종파 내지 불법을 초월한 인간의 본래모습을 집학무위한도인(絶學無爲閑道人)으로 설정해 대립과 분별을 초월한 절대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을 드러내었다. 집착과 분별을 초월한 무생(無生)과 무념(無念)의 사상을 바탕으로 돈오사상을 전개했다. 영가현각의 존재와 그 <증도가>는 돈황본 <단경>에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8세기 말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증도가>는 이후에 수많은 어록 및 가송(歌頌) 등에 인용됐다. 돈황사본에는 <선문비요결초가대사일숙각(禪門秘要決 招覺大師一宿覺)>이라는 제목으로 페리오본 2104에 수록되어 있고, 기타 스타인본 2165·4037·6000 등에도 <증도가>가 수록돼 있다. 송대부터 청대에 걸쳐 다수의 주석서가 출현했

고, <조정사원(祖庭事苑)> 권7에 그 어석(語釋)이 수록돼 있다. 청나라 때 위림도매(烏霖道暉)가 1687년에 편집한 <선해십진(禪海十珍)>에도 수록돼 초학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선별됐다. <증도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개판됐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한글 언해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첫머리에서 “그대는 보았는가(君不見).” 라고 설정한 것이야말로 증도의 도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준다. 이 말에는 나와 상대의 분별이 초월되어 있다. 부처이기 때문에 증도(證道)가 완성되어 있다든가 중생이라 해서 증도(證道)가 미완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닌 본체의 모습이다. 때문에 영가는 이미 법이연(法爾)하게 드러나 있고 작용하고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수행과 깨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증도가>를 시작한다. <증도가>의 제목을 굳이 해석하자면 깨침의 노래 혹은 글, 도를 깨치는 노래, 깨쳐 있는 도를 노래 함 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저 깨침일 뿐이다. 도를 목격하여 하여 수행을 통하여 그것을 깨친다거나 깨쳐진 도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래부터 증(證)이고 도(道)이며 그렇게 드러난 가(歌)이다. 때문에 굳이 도를 뉘는다는가 구한다든가 터득한다든가 하는 분별의 행위와 조작의 집착을 벗어나 있다. 영가는 이것을 곧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행이 완성된 무위법의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끊지도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무명의 본래 성품이 그대로 참보성이고 허깨비 텅빈 몸뚱아리 그대로 법신이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명천화상증도가(南明泉和尚證道歌, 보물 제 758호). 고려 고종 때 남명선사 법천(法泉)이 편찬한 증도를 복각(覆刻)한 책이다. 책의 내용이 되는 증도가(證道歌)는 당나라의 영가현각(永嘉玄覺)이 선(禪)의 깨달음을 7언의 운문으로 읊은 것인데, 이 책은 남명화상이 거기에 320편의 송(頌)을 덧붙인 것이다.

불기 2554(2010)년

## 대한불교대승종 연수교육 안내

중헌종범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승종 전 종도계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9월 4일부터 (오후 3시까지 입소 바랍니다.)
- 회 향 : 2010년 9월 6일까지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세면도구등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승리 392-10
- 접수.문의처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 140번지 상원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 951-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10-7322-4747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 대중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 수행 및 교육 희망자 모집공고

대중포교와 인재양성 그리고 수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봉화산 정도원에서 생활속에서 불교지도자가 되어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1. 수행 및 교육목표 : 도덕적인 수행력을 갖춘 내실있는 대중불교 포교사 양성
2. 모집인원 : 매 기수별 5명 (승속 및 남녀불문, 종단 사회단체 관계 없음)
3. 교육기간 : 2010년 10월부터 6개월 과정 / 1년 과정
4. 교육장소 : 봉화산 정도원 (고 노무현 대통령 49계 봉안 도량)
5. 교육혜택 : 숙식 및 교육에 따르는 편의제공(무료) / 기간중 1인당 매일 30만원 장학금 지원
6. 교육환경 : 정도원에 있는 대중과 함께하는 생활
7. 교육방법 : 전 과정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수행 및 교육
8. 수행 및 교육내용 : 조식예불, 염불선수행, 교리탐구, 불교의식, 구술포교를 위한 원고작성 및 스피치 실습, 회의진행법과 토론술 연마, 도량 청소 및 노력봉사
9. 진행총괄 : 선진규 법사 (봉화산 정도원장)
10. 특 강 : 국내최고 권위있는 불교학자 및 크스님 초빙
11. 응모자격 : 고졸이상의 자격자, 대중불교운동에 뜻이 있는 창의적인 불자
12. 신청서류 : 신청서, 이력서, 사찰주지 및 불교단체장 추천서
13. 응모기간 : 2010년 8월 15일 - 31일까지
14.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전화면접 후 개별통지 합니다.

※ 문의 : 봉화산 정도원 055)342-2991~2 / www.bonghwasan.org

### 봉 화 산 정 도 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

